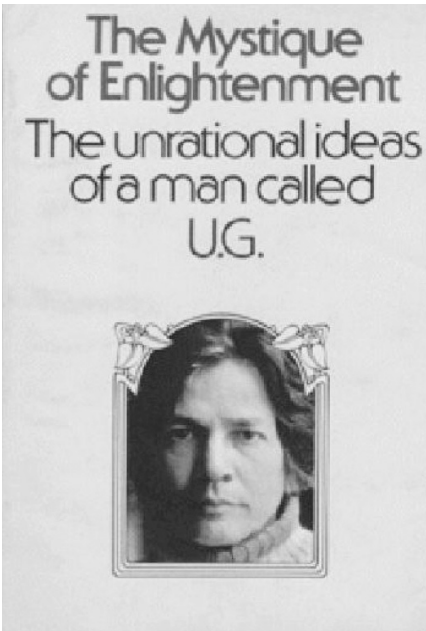


## 깨달음의 신비

### U. G.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 (1부)

| U.G. 크리슈나무르티 | 로드니 암스 편집 | 노호상 옮김 |

U.G.는 그 모든 깨달음에 대한 '신비'를 거짓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신성함과 황홀함, 놀라운 상태 등등이... 왜일까요? 그것은 깨달을 '자아'가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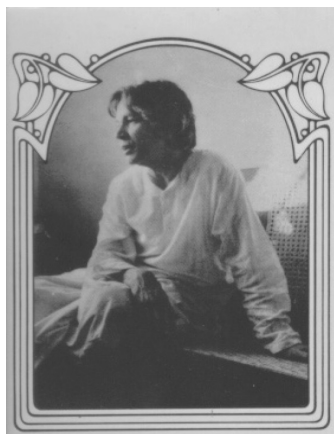
많은 ‘영적 구도자들’이 추구하는 진리 대부분은 구루들이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U.G. 크리슈나무르티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록된 책 중에서 아마도 가장 솔직하고 직설적인 책이 여기에 있다. U.G.는 그의 이야기에서 ‘소위 깨달음’은 순전히 생물학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문화, 조건, 종교적인 생각과 지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이, 그 스스로 ‘비범한 지성’을 가진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U.G.는 스위스에서 그의 마흔아홉 번째 생일날 그에게 일어났던 그가 ‘재앙’이라고 부르는 그 경험 이후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살아왔다. 그는 그때부터 그 주제에 관해 권위 있는 사람으로 유럽과 인도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U.G.의 이야기들은 격의 없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 J. 크리슈나무르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U.G.도 한때 그의 가르침을 존경하였으나 지금은 ‘낱아빠진 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그와 같은 문제로, 구루든 구루가 아니든 모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되는 사람이다. 그는 ‘너무나 충격적인 인물,’ ‘극도로 화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를 반대하는 예언가’로 불려왔다.

『깨달음의 신비』는 ‘구도의 길’을 걷고 있거나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고, 독특하고, 귀중한 길동무이다. 이 이야기는 ‘거룩한 일’을 근본에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이고, 일생에 걸친 영적 수행 ‘덕분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수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를 솔직하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밝히고 있는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다.

- 앨리스 펠로드 Alice Furlaud

## 제 1 부

(1973년에서 1976년까지 인도와 스위스에서 나는 대화에서 편집)



사람들은 나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 나는 그 말을 아주 싫어한다 -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는 방식을 설명할 다른 용어를 발견할 수 없다. 동시에 나는 깨달음과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내가 일생동안 깨달은 자를 찾았고 깨달은 자가 되고 싶었지만 깨달음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특정인이 깨달았는지 아닌지와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중에 섞여 있는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은 물론이거니와 기원전 6세기의 붓다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의 속기 쉬운 기질에 기생하는 착취자들이다. 인간의 외부에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두려움에서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문제는 두려움이지 신이 아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발견했다. 깨달을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말하는 깨달음이다. 그것은 박살내 버리는 일격으로 온다. 이것은 당신을 벼락처럼 내리친다. 당신은 자아인식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발견할 자아가, 깨달을 자아가 없다는 것을 마침내 불현듯 발견하고는, “도대체 나는 일생동안 무엇을 했던 말인가?!” 하고 탄식한다. 그것이 당신을 산산조각 부순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 나는 그것을 다 겪어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신이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아예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화다. 당신은 이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

U.G.: 당신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깨달음’이나 ‘자유,’ ‘목샤(moksha),’ ‘해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는 모두 숨은 뜻이 있어서, 저마다의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드러나지요. 왜 누구에게는 드러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지는 저도 모릅니다.

질문 : 그러면 당신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나요?

U.G.: 그것은 제게 일어났습니다.

질문 : 언제였습니까?

U.G.: 49세 때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방향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 (진리 혹은 실재의 추구나 탐구이든) 그것은 당신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당신 자신의 상태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깨달음은 노력의 결과로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인과(無因果, acaus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탐색은 끝납니다.

질문 : 선생께서는 그것이 탐색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생께서 철학을 공부하셨고, 종교적인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U.G.: 탐색은 당신을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죠. 탐색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 : 탐색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인가요? 탐색 ‘때문’이 아니라?

U.G.: 탐색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이미 존재하는 그것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늘 그 상태에 있어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탐색입니다. 탐색은 항상 잘못된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매우 심오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의식 속에 있는 오염입니다. 당신은 ‘오염’(오움)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신성하고 거룩하고 심오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오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총’이라면, 누구의 은총인가요? 당신은 특별히 선택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왜 당신에게 줘야 합니까?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습지요.

질문 : 그러나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선생님은 느끼십니다.

U.G. : 아닙니다. 그것을 느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 그것을 알 방법도 전무합니다. 그것은 다만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군요. 내가 누군가와 다르다는 생각은 나의 의식에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질문 :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이래로 처음부터 그랬나요?

U.G. :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무언가를 탐색하고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군요. 내가 전체 배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나까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나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웃음)

질문 : 나치케타<sup>1)</sup>처럼 단지 호기심에서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선생님 개인에게, 선생님이 각성하는 정도까지 일어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U.G.: 그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지 않군요.

질문 :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U.G.: 그렇다면 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나의 삶의 이야기가 어느 한 지점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서 멈춥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의 전기를 쓰는 데 관심을 가진 전기 작가 두 사람은 두 개의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했던 것(사다나sadhana(영적 수행), 교육, 전체 배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죠. (웃음) 다른 작가는 ‘불구하고’라는 나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꺼운 책을 낼 만한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웃음) 전기작가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출판사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인과 관계가 작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원인을 찾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지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군요. 여전히 ‘어떻게’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네요.

저의 배경이나 환경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모

---

1) 나치케타Nachiketa: 카타 우파니샤드(Katha Upanisha, 고대 인도의 신비 철학서인 우파니샤드의 하나)에 나오는 젊은이로, 죽음의 신인 야마Yama를 찾아가서 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편집자 주

델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저마다 다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름대로 다 독특한 것입니다. 당신의 조건, 환경, 배경, 모든 것이 다릅니다. 삶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이 다릅니다.

질문 :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할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봅니다. 저도 그런 겁니다. 선생님을 모방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구요. 어쩌면 상관이 있을지도 모르죠, 누가 아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나치케타라고 말했던 겁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U.G. : 당신은 당신의 질문에 답할 아마 다르마라자Yama Dharmaraja가 필요합니다.

질문 : 개의치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아마 다르마라자가 되어 주시죠.

U.G. :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알다시피 저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웃음) 나의 인생의 전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우리는 듣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U.G. : 이야기가 나오지 않네요.

질문 : 영감이 필요한가요?



U.G.: 나는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측면, 나의 인생의 조잡한 측면을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그는 1918년 7월 9일 인도 남부의 중산층 바라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성은 우팔루리Uppaluri였고, 그의 이름은 우팔루리 고팔라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그래서 그는 마솔리파탐Masulipatam 근처에 있는 구디바다Gudivada라는 작은 읍내에서 외조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나는 매우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매우 교양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블라바츠키Blavatsky(신지학회 창립자)와 올코트Olcott,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대, 3대 신지학회의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훌륭한 변호사였고, 매우 부유했으며 교양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우 전통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종의 뒤섞여 있는 사람이었죠. 한편으로는 보수이고 전통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지학 같은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균형을 이루는 것에 실패했죠. 그것이 나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U.G.의 어머니가 죽기 바로 전에 U.G.는 “헤아릴 수 없는 고도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이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U.G.의 양육과 교육에 헌신하기 위해 변호사 일을 접었다. 외조부모와 그 친구분들은 U.G.가 요가 브라쉬타yoga bhrashta, 즉 전생애 거의 깨달음에 도달했던 자라고 확신했다.)

신지학자들과 그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은 할아버지는 가정교사들을 고용했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를 위해서 완전한 환경을 만들고, 나를 바른 길로 교육시키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이 사람들이 와서 우파니샤드, 판차다시, 니쉬까르미야 시디, 주

석서, 주석서에 대한 주석서 등 무수히 많은 책을 4시부터 6시까지 읽어 주었습니다. 대여섯 살, 일곱 살 된 어린 아이가 이 모든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일곱 살이 될 무렵에 나는 그 많은 것을 대부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판차다시, 니쉬카르미야 시디와 이런 저런 구절들 말입니다. 아주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라마크리슈나 계통의 사람들과 다른 계통의 사람들이죠.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은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어려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모두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것을 말하고, 대단한 것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은 천박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탐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만큼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떨어져 있는 명상 방에서 한두 시간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한 살 반이나 두 살쯤 된 어린 애가 어떤 이유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죠. 아이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두 시간씩 명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가 무엇을 했나요?” 그것은 일종의 트라우마(심리학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군요)을 남겼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재미 있는 어떤 것이 있음에 틀림없죠. 그들의 삶은 천박하고, 비어있습니다. 그들은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진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이런 신경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에 빠졌습니다. “붓다, 예수, 위대한 스승들 -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는가? 모든 이들이 목샤, 해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게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알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의 화신이나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음에 틀림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시바난타 사라스와티 Sivananda Saraswati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힌두교의 전도사였습니다. 14세에서 21세 사이(불필요한 사건은 건너뛰겠습니다)에 나는 자주 그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온갖 고행을 했습니다. 나는 매우 젊었지만 목샤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그 목샤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 - “이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들입니다” - 에게 어떤 위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과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가를 수행하고, 명상 수행을 하고,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경험을 했습니다. 삼매, 초월 삼매, 니르비칼파 삼매, 모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네가 원하는 어떤 경험도 창조할 수 있어 - 지복, 행복, 환희, 무無로 녹아들기 - 모든 경험들. 하지만 이런 일을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과 내가 다를 게 뭐야, 그러니 이것이 진짜일 리가 없다. 명상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것은 나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아.”

그다음으로 성性은 나와 같은 젊은 청년에게 대단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물학적인 것이고, 인간의 몸에 일

어나는 충동이야. 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성을 부인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을 억압하고,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전체의 일부인 어떤 것을 억압해야지? 이게 더 실제적이고 나에게서는 목샤나 해탈,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데. 이것이 실재야 - 나는 신이나 여신들을 생각하고 몽정을 했어 -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내가 죄의식을 느껴야하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 명상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공부도 도움이 되지 않아. 수련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 나는 소금도 먹지 않고, 매운 것도 먹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바난다라는 이 사람이 문 뒤에서 망고 피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어떤 것을 얻겠다는 희망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그는 위선자야” - 나는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이런 종류의 삶은 나에게 맞지 않아.”

질문 : 선생님께서는 14세와 21세 사이에 성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하셨나요?

U.G.: 아닙니다. 나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허락했지요. 나는 성충동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성충동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동적인 에로티시즘에 빠지고 싶어하는가? 나는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내가 이 온갖 성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게 왜 그런가?” 이것이 나의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명상이었습니다; 가부좌로 앉거나 물구나무를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지?” 나는 극장에 가지도 않았습니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르노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 “어떻게 그렇지? 이것은 안에 있는 어떤 것이야.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야. 밖은 자극일 뿐이야 - 밖에서 자극이 오는 것이야. 그러나 안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자극이 있어 - 이것이 내게는 더 중요해. 나는 성공적으로 외부의 모든 그런 자극을 잘라버릴 수 있어. 그러나 안으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나?” 나는 이것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험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비록 나 스스로는 성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성경험이 어떤지는 알 것 같았죠. 이것이 계속 되었습니다. 나는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 때였습니다. 나의 목적은 금욕주의 수도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벌어지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성충동을 만족시키는 문제라면, 왜 결혼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사회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인데. 왜 가서 이런 저런 여자들과 성관계를 해야 하지? 결혼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

내가 21살이 되었을 때 모든 선생님들 - 붓다, 예수, 스리 라마크리슈나, 모두 - 이 스스로를 놀리고 있고 스스로를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매우 강하게 느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것일 리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상태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은 나와, 내가 행동하는 방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모두가 ‘화내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화가 나는데. 나는 안으로 잔인한 행위로 차 있는데. 그러니 그것은 거짓이야. 그 사람들은 내게 이리이러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이야. 거짓이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것일 거야. 나는 거짓된 사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욕심이 많아. 무욕이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어딘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어. 이런 욕심이 실재의 것이고 나에게 자연스러운 어떤 것이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그래서 어딘가에서 어떤 것이 잘못이야. 그러나 무욕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바꾸고, 나를 속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의 욕망은 나에게 실재라고.” 나는 여전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사람들이 ‘실존주의자의 메스꺼움(existentialist nausea)’(당시에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신성한 것, 모든 거룩한 것에 대한 혐오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쓸어냈습니다: “더 이상 경전도 읽지 말자. 더 이상 종교도 없고, 더 이상 수행도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야만인이고, 나는 괴물이다. 나는 폭력으로 가득하다 - 이것이 실재다. 나는 욕망으로 가득하다. 욕망없음, 무욕, 화내지 않기 - 이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거짓이다.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나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나는 이 모든 것과 끝났어,” 그러나 알다시피 그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신론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에 회의적이며 철저하게 이단아라고 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티루바나말라이에 있는 마드라스 어딘가에 라마나 마하리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을 만나

봅시다. 그는 힌두 전통의 살아있는 화신이라고 하네요.”

나는 어떤 거룩한 사람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봐도,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스승들의 발 아래 앉아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두는 “더욱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얻었고, 그런 경험들은 지속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항구함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모두 가짜야 - 그들은 책에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하고 있어. 책은 나도 읽을 수 있어 - ‘같은 것을 하고 또 하라’ -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경험을 원하지 않아. 그들은 나와 경험을 나누려고 해. 나는 경험에 관심이 없어. 경험에 관한 한, 나에게서 종교 경험, 성경험 혹은 어떤 다른 경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종교적인 경험도 다른 경험과 같아. 나는 브라만을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실재를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진리를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 그러나 나를 도울 수는 없어. 나는 같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내가 한 것으로 충분해. 학교에서 수학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사람들은 수학문제를 풀고 답이 문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을 하는 대신에 먼저 답을 찾는 게 더 쉽지.”

그래서 주저하면서도 마지못해 나는 라마나 마하리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갔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곳에 한 번 가 봅시다.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यो.”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폴 브룬톤이 쓴 『Search in Secret India』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하리쉬와 관련된 장을 읽었습니다. “좋아, 상관없


어. 가서 보지 뭐.”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현존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무엇이지! 이 사람 - 그가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만화책이나 읽고, 야채나 자르고, 이런 저런 물건을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사람 -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냐고? 그는 나를 도울 수 없어.” 어쨌든 나는 그곳에 앉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현존에서 사람들은 침묵을 느낀다. 질문이 사라진다. 그의 표정이 사람을 바꾼다” -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이야기이고 환상이었죠.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는 많은 질문이 있었죠. 어리석은 질문들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기 두 시간 동안 앉아있었다. 질문이 여전히 있다. 좋아, 질문을 해보자” - 그 무렵 나는 목사를 정말 많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경의 이 부분, 목사를 나는 원했습니다. “당신이 해탈한 사람이라고 하는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저에게 줄 수 있나요?”라고 그에게 물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 나는 그 질문을 또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줄 수 있소.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이럴 수가! 처음으로 이 친구는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어느 누구도 “나는 줄 수 있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나야.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많은 영성 수련, 7년간의 영성 수련을 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그게 그 당시 나의 마음의 구조였습니다. (웃음) 나는 스스로 아주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어떤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자유롭고 어떤 때는 자유롭지 않을 수 있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든가 아니면 전혀 자유롭지 않지요.” 내가 기억나지 않는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그것으로 데려가는 계단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 대답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나요?” 이 질문은... “그가 얼마나 오만한가!” 그것이 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지? 그게 무엇이든지 말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 그것이 나의 질문,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지요. 그래서 그 질문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붓다, 예수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가? 라마나가 그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와 다를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든 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누구라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어. 무엇이 있지? 그는 나와 그렇게 많이 다를 수 없지. 그도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도 모든 일에 그 자신의 독특한 생각이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와 다르단 말인가? 무엇이 있지? : 그 상태가 무엇이지?”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질문,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찾아야 해. 아무도 그 상태를 줄 수 없어; 나는 나 스스로야. 나는 나침반도 없이, 배도 없이, 나를 데려갈 뗏목도 없이 항해도도 없는 바다를 가야해. 그 사람이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나 홀로 찾아내려고 해.” 나는 정말로 그것을 많이 원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1918~2007)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였다. 비록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思考)'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실체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한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크리슈나무르티는 종종 그의 존재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만일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두 사람이 여러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의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homepage : [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소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